

강화군, 군민 '건강한 여름나기' 행정역량 집중 전년보다 무서워진 폭염대비 종합대책 마련



폭염대비 종합대책 - 횡단보도 그늘막(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이 군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2022년도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폭염대책 TF팀으로 ▲상황총괄반 ▲취약계층 보호반 ▲건강관리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며,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즉각 폭염대책본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폭염대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현황과 냉방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난 도우미 지원과 방문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횡단보도 그늘막 85개소, 쿨링포그 5개소, 무더위 쉼터 239개소를 운영하며, 기상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접히고 펴지는 스마트 그늘막 3개소를 올해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올해의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6월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현상이 평년보다 빈번할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습도가 높은 해안가나 도서지역의 경우 폭염 특보가 빈번하게 발효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군은 선제적인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설 피해예방, 취약계층 보호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여름철 사업장 근로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한 강화된 안전대책을 추진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도심 열섬화 방지를 위해 도로 살수차를 활용한 물청소를 실시하고, 정전사고 등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생활 속 폭염 행동수칙 홍보를 위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개최하고, 제작한 홍보물품(양산, 미니선풍기, 쿨토시, 부채 등)을 취약계층 등에게 배부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여름은 전년보다 더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인 폭염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해 폭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폭염대비 종합대책 - 쿨링포그(사진제공 강화군청)

공정율 120%, '해안순환도로 4-1공구' 순항중 권영현 강화군수 권행대행, 흔들림 없는 군정 추진



권영현 강화군수 권행대행 '해안순환도로 4-1공구'사업 현장확인(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이 '강화 해안순환도로 4-1공구'가 계획대비 120% 공정율로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 공정율 대비 120% 초과 달성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해안순환도로 4-1공구'는 사업비 159억 원을 투입해 하점면 창후리부터 양사면 인화리에 이르는 도로 2.0km를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연약지반처리 및 구조물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권영현 강화군수 권행대행은 지난 20일 관련 국·과장과 함께 '해안순환도로 4-1 공구' 사업 현장을 찾아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해안순환도로 4공구'는 인천시(종합건설본부)의 장기 사업이었으나, 군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4-1공구'를 직접 시행해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지난 2020년 7월 착공했다.

군 관계자는 "교동대교의 개통 이후 침체된 창후항에 활력을 다시 불어 넣기 위한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며 "4-1공구와 더불어 월선포항~상용리 해안순환도로 등 군정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민선 8기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 최백하 기자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 현장점검 폭염 및 가뭄 대응 선제적 대응 총력



농업용수 공급현황 점검(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이 모내기철을 맞아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영현 강화군수 권행대행은 지난 26일 이수근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와 함께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시설과 저수지 등 현장을 방문해 농업용수 공급현황을 점검했다.

군은 사업비 718억 원을 투입해 송수관로 72.9km, 양수장 17개소, 저류지 2개소를 구축하고 하루 최대 3만6천 톤의 한강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읍·면별로 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급 지역에 단계적·우선적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권영현 권행대행은 지난 16일 간부회의에서 한해대책보고를 받고 '물 관리 종합 대책'을 주문했으며, 이날은 농업용수 공급 현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했다. 또한, 한강물이 미치지 못하는 한해 취약지에 대해서도 가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강화군의 누적 강수량이 99mm로 예년 230mm에 비해 절반에도 못치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관내 30여 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50% 이하로 내려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구축을 완료한 한강물 공급시설인 양수장 17개소를 최대 수준으로 가동해 모내기를 지원하고 있다.

권영현 권행대행은 "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 최백하 기자

‘2022년 농업아카데미’ 교육 대면 실습교육으로 전환 운영

14개 과정 500명 참여, 대면 실습교육 열기 후끈



강화군 '2022년 농업아카데미' 교육 현장(사진제공 강화군청)

이고 실용적인 영농기술 보급과 함께 현장의 문제를 농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해결해 농업 경쟁력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농업아카데미는 지난 2월 개강해 14개 과정 중 과수기초, 농산물가공, 밭작물, 포도, 귀농귀촌, 생활원예, 시설채소 등 7개 과정에 5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실습교육을 통해 ▲귀농귀촌 ▲생활원예 ▲치유농업 ▲유튜브 마케팅 ▲강소농 등의 교육과정이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효과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육생은 “비대면 교육은 편한 시간에 교육에 참석하면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편했지만, 영농 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 교육이 아쉬웠다”며 대면교육을 반겼다.

군 관계자는 “교육의 질을 보다 높여 농업인들의 전문지식배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격적 영농철을 맞아 시간을 낼 수 없는 농업인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강화군이 전문지식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한 ‘2022년 농업아카데미’ 교육을 대면 실습교육으로 전환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농업아카데미를 대면교육으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전문적

강화군, 농작물 바이러스병 예찰 및 현장 영농지도

농작물 바이러스병 조기진단 현장지원 강화



바이러스에 걸린 고추(사진제공 강화군청)

대해 진단키트를 사용해 감염 여부를 2~3분 내에 조기 진단하고,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현장 영농지도를 강화했다.

최근 고추와 토마토에서 자주 발생하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는 발병초기 선단부위가 연녹색으로 변하다 검은 반점이 나타났다. 이후 아래로 구부러지면서 시들어 잎이 정상적으로 생육되지 않는다. 고추의 경우 유묘기를 지나 열매가 달려도 둥근 형태의 칼라무늬가 나타나 ‘칼라병’이라고도 한다.

바이러스병은 방제할 수 있는 약제가 없어, 이병주(바이러스병 발생주)를 제거해야만 정상주로 번지는 것을 막고, 과실 수확량과 상품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된 개체는 치료가 되지 않아 이병주는 즉시 제거해야 하고, 전염원인 꽃노랑총채벌레, 진딧물 등 매개충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고추, 토마토, 수박 등 원예작물에 바이러스병으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보고되고 있다”며 “한번 감염된 묘는 치료가 되지 않으므로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하고, 지난해에 발생되었던 포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강화군이 농작물 바이러스 병의 유행에 대비해 사전 진단과 현장 지원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작물 바이러스병은 올해 5월 평균 기온이 예년 평균보다 1~2℃ 정도 높아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고추, 토마토, 오이, 수박 등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 10종에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첨단농업팀 ☎ 032-930-4180

강화행복 키즈카페

6월 시범운영 일정

6월에는, 7월부터 시행하는 정상운영을 위하여
시설점검 및 보완이 있을 예정이오니
운영일정을 참고하시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이용
안내

운영기간 6/1 ~ 6/18, 화~토 운영 (일,월 휴관)
☎ (6/19 ~ 6/30은 정비기간으로 미운영)
이용시간 화~금(평일) 오후 15:30~17:30, 1번 운영
토, 공휴일 1회 오전 09:30, 2회 13:00, 3회 15:30
※평일 1~2회차는 단체 이용으로 개인 예약 불가

점심시간 11:50~12:50
(점심시간 열레베이터 및 비상계단 미운영)

9시부터 선착순 현장접수, 신분증 및 등본 필수
회차당 아동기준 70명 제한

강화섬쌀 '나들미' 품종보급 가속도

지역 특화 고품질·고부가가치 벼 품종 보급 / 대한민국 최고 명품 브랜드 육성에 박차



강화섬쌀 나들미 모내기(사진제공-강화군농업기술센터)

강화군이 강화섬쌀 '나들미' 품종의 조기 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최고 명품 브랜드 육성에 나섰다.

군은 강화섬쌀 '나들미' 품종의 조기 보급을 위해 올해 사업으로는 1ha 규모의 채종단지를 조성했으며, 내년에는 시범재배 단지를 100ha로 확대하고, 24년부터 우량종자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강화도 남부(화도면)와 북부(양사면)지역에 '나들미' 농가실증포를 운영해 가공·유통 단계부터 수확 후 시식 평가까지 소비자의 평가를 받고, 지역에 적합한 파종시기, 시비방법, 등숙률, 수확량 등의 자료를 수집해 농가에 보급할 방침이다.

강화섬쌀 '나들미'는 고시히카리, 추청 등 외래품종을 대체하고, 농가와 소비자가 원하는 최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쌀을 생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손잡고 농업인과 수요자가 함께 참여해 개발한 지역에 특화된 고품질의 벼 품종이다.

특히, 미생물이 풍부하고 쌀의 품질이 좋게 하는 마그네슘 성분이 월등한 청정지역에서 거친 해풍을 이겨낸 강화섬쌀 '나들미'는 단백질 함량이 5.8%로 낮으며 찰지고 맛이 좋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전국 소비자 밥맛평가단에서도 밥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강화섬쌀 '나들미' 품종을 농가에 조기 보급해 대한민국 최고품질의 차별화된 강화섬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석모도 수목원에서 해명산 등산로 방향 트래킹 코스 조성

산림 휴양 및 여가 수요 충족...지역경제 활성화



석모도 수목원에서 해명산 등산로 방향 트래킹 코스 예상 조감도(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은 석모도 수목원에서 해명산 등산로 방향으로 임도 0.6km를 오는 9월까지 새롭게 개설한다고 밝혔다.

석모도는 코스가 험하지 않으면서 산행내내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는 해명산, 서해낙조가 장관을 이루는 민머루 해수욕장, 우리

나라 3대 기도사찰인 보문사를 비롯해 석모도 미네랄 온천 등이 있어 수도권 제일의 힐링 여행지로 손꼽힌다.

군은 이번 임도 개설로 석모도 해명산의 산불과 병해충을 예방해 숲을 체계적으로 가꾸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석모도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연결하는 임도(2km)와 연결해 심신을 치유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트래킹 코스로 활용한 복안이다.

임도 개설이 완료되면 해명산을 따라 약 1시간 동안 완만한 능선을 걸으며 석모도의 아름다운 절경과 함께 산림욕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빼어난 경관과 깨끗한 시설로 연간 4만여 명이 방문하는 석모도자연휴양림의 이용객들이 트래킹을 통한 산림 휴양과 치유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관내 임도는 넓은 산림면적 대비 부족한 실정이다"며 "산림을 보전하면서 산림교육, 휴양, 치유를 즐길 수 있도록 임도개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Photo NEWS 내고향을 훈훈하게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



김 사 때
인천광역시 김해군청
2022년 5월 10일



산림병해충 방제단 운영, 선제적 방제 실시



강화군 자원봉사센터, 반려화분 나눔



장기간 폐쇄로 찌든 묵은때를 청소하는 자원봉사자들

강화군,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감사패 수상

산림병해충 방제단 운영, 선제적 방제 실시

강화군 자원봉사센터, 반려화분 나눔

장기간 폐쇄로 찌든 묵은때를 청소하는 자원봉사자들

민·관·군 합동 방역발대식, 말라리아 매개 감염병 비상방역체계 돌입

강화군이 지난 20일 민·관·군 합동 방역발대식을 갖고 하절기 말라리아 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발대식에는 민간위탁방역사업자, 군부대 방역반, 지역 자율방역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2022년 방역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감염병 매개모기의 방제요령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방역약품 및 방역장비의 실제 사용방법, 방역장비 정비요령 등의 시간을 가졌다.

군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하절기 감염병 예방 비상방역에 들어갔다. 군을 16개 권역으로 나눠 민간위탁 방역반과 방역 기동반을 운영해 모기 주요서식지와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집중적으로 방역할 방침이다. 해충기피제, 축사 해충유인퇴치기, 소외계층 모기훈증기 등을 지원해 방역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말라리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20일 민·관·군 합동 방역발대식(사진제공 강화군청)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거주지 주변의 고인물 제거 등 모기가 성장할 수 있는 유충서식지 관리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로 관광만족도 UP! 찾아가는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용흥궁) (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이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본격 운영하며 나들이하기 좋은 관광 친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차량에 설치된 미디어 보드와 홍보물들을 활용해 ‘강화읍 원도심’, ‘DMZ 평화의 길’, ‘소창 체험관’, ‘기독교 역사기념관 및 성지순례 길’ 등에 대한 관광정보를 알리고, 크고 작은 이벤트도 개최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가족 및 연인들에게 인기를 더하고 있는 ‘강화읍 원도심 여행’에서 여행객들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에서 정보를 얻고

골목 사이사이를 걸으며 고려시대부터 1960~70년대 산업화기에 이르는 강화의 숨겨진 역사, 문화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강화읍 원도심’은 고려궁지를 중심으로 성공회 강화성당, 용흥궁, 조양방직, 미래체험관, 소창체험관, 강화읍성 등이 골목골목으로 연결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관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강화군, 미션 체험게임 'Alive 강화, 연미정에서 시즌 2' 출시 가족과 연인과 함께 즐기는 게임형 시간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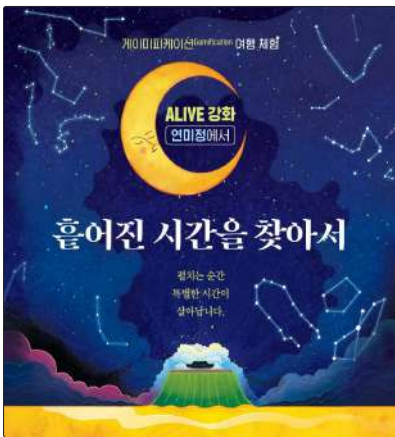


대, 강화역사박물관 등 입장료 50% 할인권과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게임은 연미정에 위치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에서 임무 카드를 수령하면 참여할 수 있다. 임무 카드는 매주 금·토·일에 배포한다.

연미정은 월곶돈대에 있는 정자로, 연미정에 오르면 한강하구 너머로 북한 개풍군이 손에 잡힐 듯 보인다. 한강과 임진강이 합쳐서 서해로 흘러가는 곳에 위치해 강화 8경 중 가장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지난 2020년에는 강소형 관광지로 선정되며, 비대면 관광지로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연미정을 사이에 두고는 수령 500년의 느티나무 2그루가 웅장한 자태를 자랑했으나, 그중 한그루가 지난 2019년도 발생한 태풍 '링링'으로 완전히 부러졌다. 부러진 느티나무는 '강화반단이'로 만들어 강화역사박물관과 소창체험관에 전시하고 있다. 강화반단이는 섬세하고 치밀한 세공이 특징으로 조선시대 궁궐에서 사용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방문객들의 호응으로 'Alive 강화, 연미정에서 시즌 2'를 출시하게 됐다"며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강화군을 방문해 호국의 고장 강화도를 직접 체험하며 역사·문화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군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 'Alive 강화, 연미정에서 시즌 2'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여행 모바일 게임 'Alive 강화, 연미정에서 시즌 2'는 시간여행을 하며 미션을 수행해 부러진 500년 느티나무를 소생시킨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연미정을 방문해 미션을 완수하면 관내 주요 관광지인 평화전망

도전하는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공간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청년 유출 막고, 지역 경제 살리고...취·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요람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센터장 윤정혁, 이하 '센터')가 취·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요람으로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9월 강화읍 중앙시장 B동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단순 일자리 연계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실현하는 21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며 창업·일자리에 필요한 훈련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호평을 받고 있다.


센터는 청년들의 신규 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년창업 스타트 지원 ▲경력단절 여성 창업교육 ▲강화 청년공간 '청년센터마루' 운영 ▲예비 창업자 입주공간 지원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양성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라이브커머스 판로개척 ▲창업일자리 자문위원(멘토)

단 운영 ▲창업·창직 아카데미교실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일자리상담실 ▲VR(가상현실)면접체험관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원 ▲취업 아카데미 교실 등을 운영해 구직자의 역량과 취업지원을 강화했다.

한편, 강화군은 '창업·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중앙시장 2층에 있던 옛 청년몰을 재단장해 '청년센터 마루'를 조성하고 있다.

'청년센터 마루'에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젊음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상담, 직무 멘토링을 위한 취업상담실 ▲취업정보 검색과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룸 ▲각종 자격 및 시험을 준비하는 스터디룸 ▲청년 창업 준비생을 위한 창업공간 등이 마련된다. 오는 9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정혁 센터장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도전하는 청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희 기자



창업·일자리센터 상담실



창업·일자리센터 내 유튜브 편집실(사진제공 창업·일자리센터)

인천시, 생활주변 곳곳 살피는 안전보안관 지원 늘린다

-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위해 관련 조례 입법예고 -
 - 지난해, 3천814건 위험상황 안전신고 ... 안전사고 예방 역할 톡톡히 -



인천시청

인천시가 골목골목 내 마을 안전을 살피는 안전보안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의 첨병인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독려하고, 군·구간 형평을 위해 활동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위촉된 지역 주민들이다.

터미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도로 등 생활주변 시설의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보안관 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시행됐다.

2015년 인천에서 처음 실시된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안전보안관들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흡연 등)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무시 7대 관행’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에 참여해 안전활동도 전개한다.

군·구별로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에는 이달 현재 총 308명의 안전보안관이 위촉돼 있다.

이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위험상황은 2018년 총 4천 774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5,316건으로, 3년간 약 320%가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내용은 교통분야가 8천6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분야가 3천8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보안관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주변시설 안전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 공익신고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현충일에 조기(弔旗)를 달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립시다.



●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 오는 6월 6일은 제67회 현충일입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弔旗)를 게양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깁시다

조기(弔旗) 게양 방법

■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 답니다

* 다만,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최대한 내려 게양

■ 조기(弔旗)는 현충일 당일에만 게양 합니다

-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

※ 단,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형태로 달 수 있음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태극기 게양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람

태극기의 구입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인천시, 숲 산책하고 텃밭 가꾸며 치매극복 돕는다

- 엔데믹 시대, 약물치료 대안으로 야외치유 프로그램 운영 -
- 전문가와 함께 산림농림치유 프로그램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지원 -



치매환자 치유 '힐링 숲' 프로그램(사진제공 인천시청)

인천시가 숲, 농장(텃밭)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야외프로그램을 운영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산림·농림 등 야외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은 치매예방과 우울 및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증진 등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치매관리 서비스들은 센터 내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비약물적 치료 중재법이 주목받으면서 야외 치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우선, 시는 월 1회 월미공원과 인천대공원에서 숲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숲길 산책, 피톤치드 테라피 등 자연 정취를 감상할 수 있는 '힐링 숲'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꽃 액자 만들기, 새소리와 바람 느끼기, 소감 나누기 등 오감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65세 이상 우울감이 있거나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치유 프로그램인 '우울랄라 힐링팜'도 있다.

인천광역시치매센터, 서구 치매안심센터와 지역 인증 치유 농장이 협력해 5월부터 8주간 매주 금요일 경서동 '봄여름가을겨울 농장'에서 원예 활동, 텃밭 가꾸기, 천연 염색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천연작물을 활용한 비약물적 치료요법을 통해 참여자의 우울감을 감소시켜 신체와 정서의 조화로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

시는 사회적 돌봄대상인 치매환자와 가족이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자연치유의 효과를 누리고 의미 있는 경험과 정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림·농림 야외치유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치매환자와 가족은 인천광역시치매센터 뇌건강학교(032-468-0921)로 문의하면 된다. ▣

인천시, 상반기 도서지역 가축 무료 진료 실시

- 5.26.~6.15. 강화군 교동도·석모도, 옹진군 찾아 농가예찰 및 가축진료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강화군, 옹진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와 협력해 5월 26일에서 6월 15일까지 도서지역인 옹진군 백령면(6.13-25.), 강화군 교동면(5.26.) 및 삼산면(5.27.)을 찾아 상반기 가축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79농가 9,570마리의 가축에 대한 가축전염병 검진을 실시했으며 약품 배부를 실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기타질병 관련하여 시료채취 및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등 섬 지역 소규모·고령 축산농가에 수의진료 혜택을 제공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에도 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기에 불리한 도서지역인 옹진군 백령면과 강화군 삼산·교동면에 위치한 축산 농가에 수의사가 직접 방문

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소결핵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검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여름 무더위를 대비해 더위에 취약한 가축의 적절한 사양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독방제차량으로 축산농가 소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인천시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은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도서지역 가금농가에서는 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농가 주변에 기피제 살포 및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어재연(魚在淵) - 충장(忠壯)의 시호

조선후기 공충도병마절도사, 회령부사, 병조판서지삼군부사 등을 역임한 장수



어재연 장군 초상화(사진출처-나무위키)

공충도(公忠道:지금의 충청도) 병마절도사(종2품) 재직 중이던 1866년에는 프랑스 해군의 피에르 구스타프 로즈(Roze)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한 병인양요가 발발하자 병사를 이끌고 광성보를 수비하였다. 이후 회령도호부사(會寧都護府使:종3품) 겸(兼) 회령진병마첨절제사(會寧鎭兵馬僉節制使:종3품) 북전위장토포사(北前衛將討捕使)로 부임해서는 북쪽 변경 지방의 비적을 토벌해서 치안을 확보한 동시에 장시(場市)를 개설하는 등 변경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에 일조하기도 했다.

1871년 6월 1일 손돌목(孫丕項)포격사건이 발생해, 한미간에 최초의 군사충돌이 일어났다. 이를 보고하자 진무중군(鎭撫中軍)에 임명되어 광성보(廣城堡)로 급파되어 6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광성보에 부임, 미군과 대치하였다. 6월 10일 미군은 강화도상륙작전을 전개, 초지진(草芝鎭)을 점거하였다.

6월 11일 덕진진(德津鎭)을 함락한 미군은, 마지막으로 광성보공략에 나섰다. 이 때 광성보에 수자기(帥字旗)를 게양하고 침공해 오는 미군을 격퇴할 태세를 취하였다.미군은 광성보에 대한 수륙양면작전을 개시해서, 해상에서는 함포사격, 지상에서는 야포사격으로 초토화작전을 전개하였다. 드디어 광성보로 돌입한 미군과 어재연군 사이에는 육박전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어재연은 임전무퇴의 결의로 칼을 손에 잡고 적을 무찔렀고, 대포알 10여 개를 양손에 쥐고 적군에 던져 향전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어재연(魚在淵))]



어재연 장군의 장군기 수자기

형은 나라를 위해서 죽고 동생은 형을 위해서 죽으니
이 가문의 충성을 널리 알려라.
능률한 충성은 달빛과 같이 밝으니
형제가 죽음을 서로 뒤따라가서 돌아가는 것 같이 하네.

- 어재연·어재순 형제의 충절을 기려 세워진 쌍충비의 내용 중

제151주기 광성제 봉행

어재연 장군 제향 및 순국용사 신위 추도

강화군은 24일 (사)충장공어재연장군기념사업회(회장 양재형)와 함께 충장사에서 어재연 장군과 무명용사에 대한 제향 및 순국용사를 추모하는 '제151주기 광성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권영현 군수 권한대행, 배준영 국회의원, 박승한 강화군의회 부의장, 어재연 장군 현손 등 내빈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조총 발사, 수자기 게양, 추도식 순으로 진행됐다.

그 동안 신미양요에서 순국한 어재연 장군과 무명용사를 기리는 '광성제'를 광성보 쌍충비각에서 봉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위패를 모신 충장사에서 개최한다

어재연 장군은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나자 선봉장이 되어 광성보를 수자기를 높게 걸고, 미군에 대항해 결사항전했다. 어재연 장군을

비롯한 350여 명의 조선군은 끈질기게 저항했으나 미군의 우세한 군사력에 밀려 광성보는 끝내 함락됐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개최되는 광성제 봉행을 통해 어재연 장군과 순국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며 “본 행사를 통해 광성보가 근대 역사적 사건의 현장임을 널리 알리고, 많은 이들의 호국정신이 함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성제 봉행 (사진제공 강화군청)

- 최벽하 기자

기고

2022년 춘기석전대제(春期釋奠大祭)



고 수 진
강화향교 장의

2022년 5월 11일(음력 4월 11일), 강화향교에서는 孔紀공기 2573년 春期釋奠大祭춘기석전대제가 奉行봉행 되었습니다. 석전대제는 인류의 큰 스승인 孔夫子공부자를 기리는 祭祀제사입니다. 춘기석전은 孔夫子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는 것이고, 추기석전대제는 誕降탄강하신 날을 경축하는 것입니다. 봄 가을 모두 孔夫子공부자 “大成至聖文宣王”을 위한 것입니다. 儒家유가에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불가의 ‘부처님 오신 날’ 기독교의 ‘크리스마스’와 같은 의미입니다. 孔夫子공부자의 ‘至聖지성’이란 지혜와 품덕을 지닌 완전한 인격체 ‘聖人성인’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자께서는 인정과 감성이 稟賦품부한 이데면 타고난 인간미를 지닌 선생님인 것입니다. 先聖선성이라 보기보다 ‘先師선사’라는 표현이 올바를 것입니다. 즉 스승의 典範전범으로 보면 부담스럽지도 않을 겁니다. 그 증거로 공부자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 顏淵안연의 말을 들어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顏淵喟然歎曰(안연위연탄왈); 안연 깊이 숨을 내쉬며 말하기를

“仰之彌高, 鑽之彌堅(양지미고, 찬지미견); 우러러보면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고, 피고들면 피고들수록 더욱 단단하시다.

瞻之在前, 忽然在後(침지재전, 흘연재후); 바라볼 때는 앞에 계신 듯했는데, 어느덧 뒤쪽에 서 계신다. 夫子循循然善誘人(부자순순연선유인); 스승님께서 차근차근 우리를 잘도 이끌어 주신다!

博我以文, 約我以禮, 欲罷不能(박아이문, 약아이례, 옥과불능); 옛 문헌으로 우리의 식견을 넓혀주시고, 禮예로써 우리의 행동을 단속해 주신다. 공부를 그만 두려해도 그만둘 수조차 없게 하시며,

既竭吾才, 如有所立卓爾, 雖欲從之末由也已!(기갈오재, 여유소립탁이, 말유야이!); 이미 내 능력이 다했건만 스승이 서 계신 곳은 높기만 하다. 아, 아무리 따르려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論語』 「子罕자한」

우리 요즘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어느 정도일까요.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있어도 ‘스승의 노래’가 분명 있지만 매스컴에서도 웬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필자가 옛 기억을 더듬어 한 소절 부른다면 이렇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바르거라 참되거라 가르쳐주신 / 스승의 마음은 아버지이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는 안연이 탄식하듯 스승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 내용과 사뭇 부합하고 있다.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고,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스승님의 마음은 나를 있게 한 아버지 마음과 같더라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 儒家유가에서는 ‘君師父一體군사부일체’라는 통념으로 일상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부자께서는 제자 顏淵안연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子畏於匡, 顏淵後(자외어광, 안연후); 공자께서 匡 땅에서 곤경을 당하자. 흩어졌던 일행 중 안연이 뒤늦게 합류했다.

子曰, “吾以女爲死矣! 나는 네가 죽을 줄 알았다!”

曰, “子在, 回何敢死!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어찌 함부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공자 일행이 천하유세 중에 匡 땅이라는 지역을 지

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곳 주민들에게 오해가 생겨 협박을 당하고 목숨마저 경각에 이르렀을 때, 서로 흩어져 피난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안연의 행처가 묘연해진 터에 공자는 혹시나 불상사가 있지않았나 노심초사할 때, 안연이 무사히 일행과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공자께서는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안연의 생환을 더 없이 반가웠을 것입니다. “네가 죽은 줄 알았다” 공자의 절박 심정이 이 한마디에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안연은 마치 아버이를 새로 뵈듯 “선생님이 계신 데 제자인 회회(제가) 어찌 감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스승과 제자 간의 재회가 감격스럽습니다. 師弟사제의 인간적 감성미를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안연의 태도에 대한 근거는 『禮記예기』 「曲禮곡례」 의한 것입니다.

“父母在, 不許友以死(부모재, 불허우이사); 부모가 살아 계시면 벗과 죽음을 약속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 보아 안연은 스승이신 공자를 아버이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맹목적으로 친구를 따른다는 행실은 이 말과는 무척 상반된 것입니다. 임금은 나라의 통치자로서 백성을 富民부민으로 이끌어가고, 스승님은 사회의 일꾼으로 선도하는 존재입니다. 지속적인 학업을 통해 지식을 지혜로, 지혜를 품덕의 인격체로 이끌어, 우리 사회의 평등과 공정, 정의의 엘리트 인재를 양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君子군자입니다. 아버이는 지극한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막 역할을 다하는 분들입니다. ‘君師父一體군사부일체’ 굳이 역설하지 않아도 올바른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직감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자께서는 안연이 먼저 죽었을 때, 慟哭통곡을 하면서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가!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가! 몸부림치듯 걱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안연을 위해 통곡하지 않으면 누굴 위해 통곡하겠는가?” 스승이란 체면을 불구하고 격없이 슬퍼했던 것입니다 마치 眼下無人안하무인의 상황을 의심없이 보인 것입니다. 5월 스승의 날, 그리고 孔紀 2573년 春期釋奠大祭를 통해 우리의 교육의 현실과 사제 간의 정리를 되돌아볼 이유입니다. 스승의 제자에 대한 사랑과 제자의 스승에 대한 존경은 천하 불변의 준칙임을 새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맹자는 萬世師表만세사표 공자를 극찬한 바 있습니다. “自有生民以來, 未有孔子也(자유생민이래, 미유공자야); 사람이 생긴 이래로 공자만한 사람이 아직 없었다.” 이는 곧 공자께서는 聖人성인의 반열에 올랐다는 강력한 주장인 것입니다. 필자는 『論語논어』 문구를 좇아 공자의 행적을 끊임없는 추적하는 게 여생의 갈망입니다. 다산 선생은 “베개 밑에 두고 평생 읽을 만한 책으로 『論語』 밖에 없다.” 이 말씀 영영 잊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참고서적: 최술 著/이재하 옮김 『수사고신여록』

강화남부농협,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펼쳐



강화남부농협, 영농철 일손돕기 봉사

강화남부농협(조합장 고석현)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 20일부터 농촌 일손돕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강화남부농협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농협재단 동문회, 중앙회 회원지원부 등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날 농협재단 총동문회와 임직원 10여 명은 양도면 건평리 수박 재배농가에서 순 지르기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강화남부농협은 결순따기 작업을 시작으로 적과 작업, 봉지 씌우기 등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는 포도 농가를 위해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일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석현 조합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적극 참여해준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수 설운도



발달장애인지업재활시설
우리마을

홍보대사 위촉



2022년 5월 24일, 가수 설운도씨의 발달장애인지업재활시설인 <우리마을>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정에 함께해주실 설운도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마을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노인 전문시설 건립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지면을 통해 설운도 홍보대사께 다시 한 번 진심을 가득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건·강·참·살·이

원숭이 두창 바로알기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 이례적으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여름 원숭이두창 추가 전파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확진자나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발생에 대비, 검사체계를 구축 완료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원숭이두창(monkeypox)은 1980년 WHO에서 퇴치를 선언한 ‘사람 두창’과 증상이 매우 유사한 질병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다. 1958년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된 이 바이러스는 다람쥐와 쥐 등 여러동물에 의해서도 감염이 가능하며, 1970년에 첫 인간감염 사례로 보고되었다.

원숭이두창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에서 시작되어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전이되어 감염환자의 피부상처 또는 점막을 통한 직접 접촉으로 감염이 될 수 있다. 또한 혈액 또는 체액(타액, 소변, 구토물 등)이나 감염환자의 오염된 옷이나 침구류에 의해서도 원숭이두창에 걸릴 수 있다.

원숭이두창은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림프절 병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을 보이며 사지로 발진이 확산되는 증상을 보인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5~21일(평균 6~13일)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된다.

원숭이두창(DNA바이러스)은 최근 유행했던 RNA바이러스인 코로나19에 비해 전파력이 떨어지고, 세계적 대유행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적다고 한다. 또한 치명률 3~6%의 치명률로 적절한 치료로 대부분 회복된다.

원숭이두창을 예방하기 위해선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수칙(손 씻기 등)을 준수하고, 오염된 손으로 얼굴 주변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원숭이두창 발생지역방문을 자제하고, 야생동물과의 접촉 및 야생고기 취급·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입국 후, 3주 이내에 원숭이두창 증상이 나타날 시 다른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삼가고, 대규모 모임 참석을 삼가야 한다. 최백하 기자

★마지막 한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행사는 계속됩니다.★

황소마을 7주년 감사 행사



지난 7년간 황소마을을 사랑해주신 고객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암소·암돼지 전문
살치살·토시살·안창살·
갈비살·등심

암돼지 (유황돼지고기)

생 목살	15,000원	▶ 9,900원
생 삼겹살	15,000원	▶ 11,900원
생 양념갈비	17,000원	▶ 13,900원

소고기는 하루 전 사전예약 부탁드립니다!

032.932.9595



정관장 강화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51층
M. 010.5313.3368

대표 김형식

032) 933.2304

today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